

초대의 글

우리 사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충격으로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신고가 1500 건이 넘고 사망자는 239명에 이르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영유아와 임산부여서 가족의 달 5월을 더 큰 안타까움과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보여주듯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 없이 누적된 결과로 초래된 인재(人災)이며, 생활용품 화학물질에 의한 우리 역사상 최악의 대형 참사입니다.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은 2011년 학계와 정부의 공식적 조사로 입증되어 강제 수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뒤따라야 했던 책임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 학계, 정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점은 그 과정에서 강제수거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연간 60만개씩 팔린 관련 제품들이 초래한 피해를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준 가장 귀중한 교훈의 하나야말로 우리 안방에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정부와 보건당국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리로부터 기업 윤리, 그리고 학계의 반성을 요구하고 감시하며,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와 계기를 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서 기획한 가습기 살균제 집담회에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및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의 위기

일 시 2016년 6월 2일(목) 14:00 ~ 17:00

장 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CTL) 61동 320호

1부 유례없는 생활참사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

진행 : 이태진(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원장)

14:00~14:10	개회사	김 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14:10~14:20	인사말	이우일(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14:20~14:40	발표 1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시작과 확산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14:40~15:00	발표 2 가습기 살균제와 생활용품 화학물질의 독성	김성균(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00~15:20	발표 3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 어떻게 할까	최경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20~15:30	휴식(다과와 음료)	

2부 특별한 위험사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한국 사회

진행 : 유명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5:30~16:30	지정토론 강원택(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우지숙(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도명(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16:30~17:00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종합토론	

※ 자료집 배포를 위해 이메일(gsph@snu.ac.kr) 또는 전화(02-880-2741)로 사전등록을 해주십시오.

※ 등록은 무료입니다.